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10)*

-권8, 14:09-15:05 부분을 중심으로-

김천학**

요 약

이 글은 점토석독구결 자료인 『瑜伽師地論』(Yogacārabūṃmi) 권8의 〈14:09-15:05〉 부분에 대한 잠정적인 해독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.

핵심어: 유가사지론, 점토구결

이 글은 점토석독구결인 『유가사지론』 권8의 일부(14:09-15:05)에 대하여 해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.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'業雜染'에 대한 9가지 연고 중 '業分別'에 관한 것이다.[1]

구체적인 해독안은 다음과 같다. 해독안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A-E

---

*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(2005년 5월 13일)에서 강독한 요지문을 수정한 것이다. 수정한 내용은 주로 강독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다.

**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국어실 조교.

1) 業分別은 [1] 補特伽羅相差別, [2] 法相差別의 2종 차별로 말미암는다. 또한 이 두 차별에는 10가지 善不善業道가 있다(① 殺生, ② 不與取, ③ 欲邪行, ④ 妄語, ⑤ 離間語, ⑥ 麤惡語, ⑦ 綺語, ⑧ 貪欲, ⑨ 瞋恚, ⑩ 邪見). 박진호(2004:218-9) 참조. 이 글에서 다루는 『유가사지론』 권8(14:09-15:05) 부분은 [1] 補特伽羅相差別의 ⑥ 麤惡語에 속한다.

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기로 한다.

A: 원문에 현토된 점토과 부호를 판독한 결과.
B: 점토에 대응하는 자토 표시.
C: 자토석독구려문으로 재구성한 결과.
D: 구결문에 의거하여 현대 국어로 축자역한 결과.
E: 해당 부분의 역경원 번역.

<유가 권8 14:09>
A: 復次[23(·)]麤惡語者[51(·)]者[23~33(··)]此[33(·)]是捻句[22~32(·),55(·)]
B: 復次[ㅋ]麤惡語者[ㅣ]者[xㅅㄱ]此[ㄱ]是捻句[ㅐ,ㅀ]
C: 復 次ㅋ 麤惡語者(ㅐ)ㅣ{者}xㅅㄱ 此ㄱ 是 捻句ㅐㅀ
D: 또 다음으로 麤惡語者라 하는 것은 이것은 捻句이며
E: (다음에) 추악한 말을 하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다.

<유가 권8 14:09-10>
A: 此中[44(·)]尸羅支[43(·)]所攝[15~25(-)#15~25(-·),22~32(·)#22(·),43(|)#43(:)[2]]故[21(·)]名[54(·)]語无擾動[53(·),55(·)]
B: 此中[十]尸羅支[ᄉ]所攝[尸,ㅐ,xᄉ]故[ノ]名[下]語无擾動[ㅗ,ㅀ]
C: 此 中十 尸羅支ᄉ 攝(ノ)尸 所ㅐxᄉ{故}ノ 名下 語无擾動ㅗ(ヽ)ㅀ
D: 이 가운데 尸羅[3]의 갈래로 攝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語无擾

2) 뒤에 연결되는 구문과 비교하면 43(|)으로 보아야 하겠지만,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43(:)에 가깝다. 그러나 43(:)으로 보더라도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은 문제가 있다.
3) 시라(尸羅): Śila. 6바라밀의 1. 계율(戒律), 율(律)이라 번역. 부처님이 제정한 법을 지켜 허물이 없도록 하고, 악을 멀리 여의는 것(운허용하(1961)『불교사전』).

動이라 하며

E: 이 중에, 쉬일라(尸羅)의 갈래에 딸렸기 때문에 말에 요동이 없다고 하며,

<유가 권8 14:10-11>

A: 文句美滑[21(.·)]故[41(·)]名[54(·)]悅耳[53(·),54~55(:)]

B: 文句美滑[X[4]]故[ㅈ]名[ㅏ]悅耳[ㅗ,xㄱ]

C: 文句 美滑X 故ㅈ 名ㅏ 悅耳ㅗxㄱ

D: 文句가 美滑하여서 그런 까닭에 이름하여 悅耳라 하며

E: 문구가 아름답고 매끄럽기 때문에 귀를 기쁘게 한다 하며,

<유가 권8 14:11-12>

A: 增上欲解[43(·)]所發起[33(\)]故[33~43(·),43(·),[5]55(·)]非[역독선]假僞[43(ㅣ)]故[55(·)]非[역독선]諂媚[43(ㅣ)]故[21(·)]名[=54(·)]爲稱心[53(·),54~55(:)]

B: 增上欲解[ㅱ]所發起[ㄴㄱ]故[卬,ㅱ,ㄱ]非假僞[xㅱ]故[ㄱ]非諂媚[xㅱ]故[ㄴ]名[ㅏ]爲稱心[ㅗ,xㄱ]

C: 增上欲解ㅱ 發起ㄴㄱ 所{故}卬ㅱㄱ 假僞 非(矢)xㅱ{故}ㄱ 諂媚 非(矢)xㅱ{故}ㄴ 名ㅏ {爲}稱心ㅗxㄱ

D: 增上의 欲解로 일으킨 바이기 때문이며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며 아첨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稱心이라 하며

---

4) 21(.·)에 대해 황선엽(2003 각필 프로젝트 연구 모임)에서는 <구역인왕경>의 "一 非矢ㄱ 異 非矢ㅈㄹ 故ㅈ 名ㅋ 續諦ㅣㄴㅎㅋㄱ<구인 14:07-09>"를 근거로 연결어미적인 'xㄴ'로 추정하였고, 서민욱(2005)의 부록에서는 'xㄷ'로 보았다. 이승재 외(2005)는 좀더 신중을 기해 'X'로 보았다.

5) '33~43(·),43(·)'이 아니라 '43(:)'으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. 또한 구결의 현토 양상을 고려하면, '33~43(·),43(·)'은 '所發起'에 달려야 하지만 '故'에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.

E: 왕성하게 알려고 함을 일으키게 되고 거짓이 아니고 아첨함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맞다고 하며,

<유가 권8 14:12-13>

A: 不增益[43(丨)]故[55(·)]應順時機[44(·),=22(·)]引[역독선]義利[34(·),43(丨)]故[21(·)]名[54(·)]爲可愛[53(·),54~55(:)]

B: 不增益[x灬]故[夕]應順時機[十,氵]引{역독선}義利[乙,x灬]故[丿]名[下]爲可愛[亠,x夕]

C: 增益(尸) 不(歹)x灬{故}夕 時機十 應順(丶)氵 義利乙 引x灬{故}丿 名下 {爲}可愛亠x夕

D: 增益하지 않는 까닭이며 時機에 따라 義利를 引하는 까닭으로 이름하여 可愛라 하며

E: 더 늘어나지 않고 시기를 따라 옳음과 이익을 이끌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다 하며,

<유가 권8 14:13-14>

A: 趣涅槃宮[44(·),21(.·)]故[41(·)]名[54(·)]先首[53(·),54~55(:)]

B: 趣涅槃宮[十,X]故[厶]名[下]先首[亠,x夕]

C: 涅槃宮十 趣X 故厶 名下 先首亠x夕

D: 涅槃宮에 나아가서 그런 까닭으로 이름하여 先首라 하며

E: 열반의 궁전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두머리라 하며,

<유가 권8 14:14>

A: 文句[=22~32(·),구결자(ㅐ)]可味[42(\),21(.·)?]故[41(·)]名[54(·)]美[54~55(:)]妙[53(·),지시선(/)[6]]

---

6) <유가 권8 14:15-16>에 나오는 '지시선'과 비교하면 분명하지 않다.

B: 文句[ㅣ]可味[ノ𠂉七,X]故[厶]名[下]美[x分]妙[亠]
C: 文句ㅣ 味ノ𠂉{可}七X 故厶 名下 美妙亠x分
D: 文句가 음미할 만한 것이어서 그런 까닭으로 이름하여 美妙라 하며
E: 문구를 음미할 만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묘하다 하며,

<유가 권8 14:15>
A: 善[55(·)]釋文句[34(·),21(.·)]故[41(·)]名[54(·)]分明[53(·),55(:)]
B: 善[分]釋文句[乙,X]故[厶]名[下]分明[亠,x分]
C: 善分 文句乙 釋X 故厶 名下 分明亠x分
D: 잘 文句를 풀이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分明이라 하며
E: 잘 문구를 풀이하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하며,

<유가 권8 14:15-16>
A: 顯然有趣[43(|)?]故[21(·)]名[54(·)]易可解[54~55(:)]了[53(·),지시선(/)]
B: 顯然有趣[x灬]故[ノ]名[下]易可解[x分]了[亠]
C: 顯然 有趣x灬{故}ノ 名下 易可解了亠x分
D: 顯然히 有趣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易可解了라 하며
E: 드러나게 뜻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환히 알 만하다 하며,

<유가 권8 14:16>
A: 攝受正法[34(·),43(|),구결자(乙)]故[21(·)]名[54(·)]可施功勞[53(·),55(:)]
B: 攝受正法[乙,x灬]故[ノ]名[下]可施功勞[亠,x分]
C: 正法乙 攝受x灬{故}ノ[7] 名下 可施功勞亠x分

---

7) '故'를 부독자로 처리할 경우, 'ノ'의 기능을 설명하기 어렵다. 'ノ'를 선행하는 '灬'의 말음첨기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, 'ノ'의 위치가 '故' 뒤에 나오는 점

D: 正法을 攝受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可施功勞라 하며
E: 바른 법을 껴잡아 들이기 때문에 공로를 베풀 만하다 하며,

<유가 권8 14:17>
A: 離愛味心[43(·),4자합부]之所發起[33(\),43(·)]故[21(·)]名[54(·)]无所依止[53(·),54~55(:)]
B: 離愛味心[ㅱ]之所發起[ㅅㄱ,ㅱ]故[ㅅ]名[ㅏ]无所依止[ㅗ,xㅿ]
C: 離愛味心ㅱ{之} 發起ㅅㄱ 所ㅱ{故}ㅅ 名ㅏ 无所依止ㅗxㅿ
D: 離愛味心으로 일으킨 바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无所依止라 하며
E: 사랑하는 맛을 여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무르는 바가 없다고 하며,

<유가 권8 14:18>
A: 不過[2자합부-역독선]度量[34(·),43(ㅣ)故[21(·)]名[54(·)]非可猒逆[53(·), 54~55(:)]
B: 不過度量[ㄛ,xㅱ]故[ㅅ]名[ㅏ]非可猒逆[ㅗ,xㅿ]
C: 度量ㄛ 不過xㅱ{故}ㅅ 名ㅏ 非可猒逆ㅗxㅿ
D: 度量을 不過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非可猒逆이라 하며
E: 길이와 용적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하거나 거스릴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,

<유가 권8 14:18-19>
A: 相續廣大[43(ㅣ),경계선[8]]故[21(·)]名[54(·)]无邊无盡[53(·),51(:)#51~52(:)]
B: 相續廣大[xㅱ]故[ㅅ]名[ㅏ]无邊无盡[ㅗ,xㅣ]

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. 훗날의 연구를 기대한다.
8) '大' 아래 흐릿하게 '경계선'이 그어져 있지만, 기능을 파악하기 어렵다.

C: 相續廣大x灬{故}ノ 名下 无邊无盡一x丨

D: 서로 이어져 廣大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无邊无盡이라 한다.

E: 계속하며 넓고 커지기 때문에 그지없고 다함이 없다고 한다.

<유가 권8 14:19-20>

A: 又從無擾動語[34(·),42(·)]乃[24(·)]至[역독선]無邊无盡語[44(·),22~32(·)]應知[42(\),51(·)]略[45(·)]攝[15(·)]爲三種語[24(·),33(\),33~43(·),+11(·)]

B: 又從無擾動語[乙,七]乃[氵]至無邊无盡語[十,刂]應知[ノ亠七,丨]略[ㄎ]攝[ホ]爲三種語[氵,ノ丁,卬,丁]

C: 又 無擾動語乙 從七 乃氵 無邊无盡語十 至刂 知ノ亠{應}七丨 略ㄎ 攝(氵)ホ 三種語 {爲}氵ノ丁 卬丁

D: 또 無擾動語부터 無邊无盡語에 이르기까지, 알아야 할 것이다, 간략히 묶어서 三種의 말이 되는 것이다.

E: 또, 요동함이 없는 말로부터 그지없고 다함이 없는 말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의 말에 간략하게 포섭되는 줄 알아야 하리니,

<유가 권8 14:20-22>

A: 一尸羅律儀所攝語[33~43(·),53(·)]謂一種[22~32(·),55(·)]二等歡喜語[33~43(·),53(·)]謂三種[22~32(·),55(·)]三說法語[33~43(·),53(·)]謂其所餘[33(·)?,51(·)]

B: 一尸羅律儀所攝語[卬,亠]謂一種[刂,分]二等歡喜語[卬,亠]謂三種[刂,分]三說法語[卬,亠]謂其所餘[丁,丨]

C: 一 尸羅律儀所攝語卬亠 謂 一種刂分 二 等歡喜語卬亠 謂 三種刂分 三 說法語卬亠 謂 其 餘丁 所(刂)丨

D: 첫째는 尸羅律儀所攝語이니, (이는) 一種이며, 둘째는 等歡喜語이니, (이는) 三種이며, 셋째는 說法語이니, (이는) 그 나머지이다.

E: 첫째는 쉬일라와 율의에 포섭되는 말로서 한 가지이며, 둘째는 같이 기뻐하는 말에는 세 가지이며, 셋째는 법을 말하는 말로서 그 나머지의 것이다.

<유가 권8 14:22-14:23>

A: 卽此寂後[44(·)]又有三種[33~43(/)]應知[42(\),51(·)]

B: 卽此寂後[十]又有三種[ㅅㄱ 卬]應知[ㅣㅎㄴ,ㅣ]

C: 卽 此 寂後十 又 三種 有ㅅㄱ 卬 知ㅣㅎ{應}ㄴㅣ

D: 곧 이 가장 나중의 것에는 또 3종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.

E: 곧, 이 맨 나중의 것에는 또 세 가지가 있는 줄 알아야 하리니,

<유가 권8 14:23-15:02>

A: 一所趣圓滿語[33~43(·),53(·)]謂初[=22~32(·),55(·)]一[지시선(/)]二文詞圓滿語[=33~43(·),53(·)]謂次[42(·)]二[=22~32(·),55(·)]三方便圓滿語[33~43(·),53(·)]謂其所餘[51(·)]

B: 一所趣圓滿語[卬,ㅗ]謂初[ㅣ,ㅿ]一二文詞圓滿語[卬,ㅗ]謂次[ㄴ]二[ㅣ,ㅿ]三方便圓滿語[卬,ㅗ]謂其所餘[ㅣ]

C: 一 所趣圓滿語卬ㅗ 謂 初 一ㅣㅿ 二 文詞圓滿語卬ㅗ 謂 次ㄴ 二 ㅣㅿ 三 方便圓滿語卬ㅗ 謂 其餘(ㄱ) 所(ㅣ)ㅣ

D: 첫째는 所趣圓滿語이니, (이는) 처음의 하나이며, 둘째는 文詞圓滿語이니, (이는) 그 다음의 둘이며, 셋째는 方便圓滿語이니, (이는) 그 나머지이다.

E: 첫째는 뜻하는 바가 뚜렷한 말로서 처음의 하나이며, 둘째는 글에 쓰인 말이 뚜렷한 말로서 다음의 두 가지이며, 셋째는 방편이 원만한 말로서 그 나머지의 것이다.

<유가 권8 15:02-03>

A: 又於未來世[44(·)]可愛樂[=42(\),43(|)]故[21(·)]名可愛語[53(·),54~55(:)]
B: 又於未來世[十]可愛樂[ノ丌七,x〻]故[ノ]名可愛語[ㅗ,xカ]
C: 又 {於}未來世十 愛樂ノ丌{可}七x〻{故}ノ 名(下) 可愛語ㅗxカ
D: 또 未來世에서 愛樂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可愛語라 하며
E: 또, 미래의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할 만하기 때문에 좋아할 만한 말이라 하며,

<유가 권8 15:03-04>
A: 於過去世可愛樂[42(\),=43(|)]故[21(·)]名[54(·)]可樂語[53(·),54~55(:),3자합부]
B: 於過去世可愛樂[ノ丌七,x〻]故[ノ]名[下]可樂語[ㅗ,xカ]
C: {於}過去世(十) 愛樂ノ丌{可}七x〻{故}ノ 名下 可樂語ㅗxカ
D: 過去世에서 愛樂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可樂語라 하며
E: 과거의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할 만하기 때문에 좋아할 만한 말이라 하며,

<유가 권8 15:04-05>
A: 於現在世事[44(·),35(·),4자합부]及領受[2자합부-역독선]可愛樂[42(\),34(/),35(·),43(|)]故[21(·)]名[54(·)]可{42(·)}欣語[53(·)]及可意語[53(·),33(·),33~43(·)]應知[42(\),51(·)]
B: 於現在世事[十,ㅋ]及領受可愛樂[ノ丌七,ソ丁乙,ㅋ,x〻]故[ノ]名[下]可欣語[ㅗ]及可意語[ㅗ,丁,印]應知[ノ丌七,ㅣ]
C: {於}現在世事十(ソ)ㅋ 及 愛樂ノ丌{可}七ソ丁乙 領受(ソ)ㅋx〻{故}ノ 名下 可欣語ㅗ 及 可意語ㅗ(ソ)丁 印 知ノ丌{應}七ㅣ
D: 現在世의 일에 있고 愛樂할 만한 것을 領受하고 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可欣語니 可意語니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.

E: 현재 세상의 일과 받아들임의 것에서 사랑하고 좋아할 만하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말이라 하고 뜻에 맞는 말이라 하나니.

참고문헌

김성주(2005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(6)」, 『口訣硏究』 14, pp. 213-232.

김영욱(2001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(點吐)의 해독 방법 연구」, 『口訣硏究』 7, 구결학회, pp. 57-77.

남풍현(1999), 『『瑜伽師地論』 釋讀口訣의 硏究』, 태학사.

박진호(2004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(2)」, 『口訣硏究』 12, 구결학회, pp. 215-232.

서민욱(2004), 「'如'에 호응하는 점토에 대하여」, 『口訣硏究』 13, 구결학회, pp. 175-220.

서민욱(2005ㄱ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(5)」, 『口訣硏究』 14, pp. 197-212.

서민욱(2005ㄴ), 『『瑜伽師地論』 卷 5·8의 點吐口訣 硏究』, 카톨릭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.

이승재 외(2005),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, 태학사.

이 용(2004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(3)」, 『口訣硏究』 12, 구결학회, pp. 233-247.

이전경(2004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(4)」, 『口訣硏究』 13, pp. 221-243.

장경준(2002), 「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-『유가사지론』 권5, 8을 대상으로-」, 『口訣硏究』 9, 구결학회, pp. 205-225.

장경준(2004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(1)」, 『口訣硏究』 12, 구결학회, pp. 191-213.

장경준(2005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방법 연구』,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.

〔120-836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4-8 101호〕
E-mail: chak@chol.com
접수일자: 2005. 6. 30.
게재결정: 2005. 7. 30.

A Study on Cipher Kugyol Inscribed in 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

-Focusing on vol. Ⅷ. 14:09-15:05-

Kim, Chun-Hak

This paper presents a tentative decipherment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a part of 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 vol. 8.

Key word: cipher kugyol(點吐口訣), 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